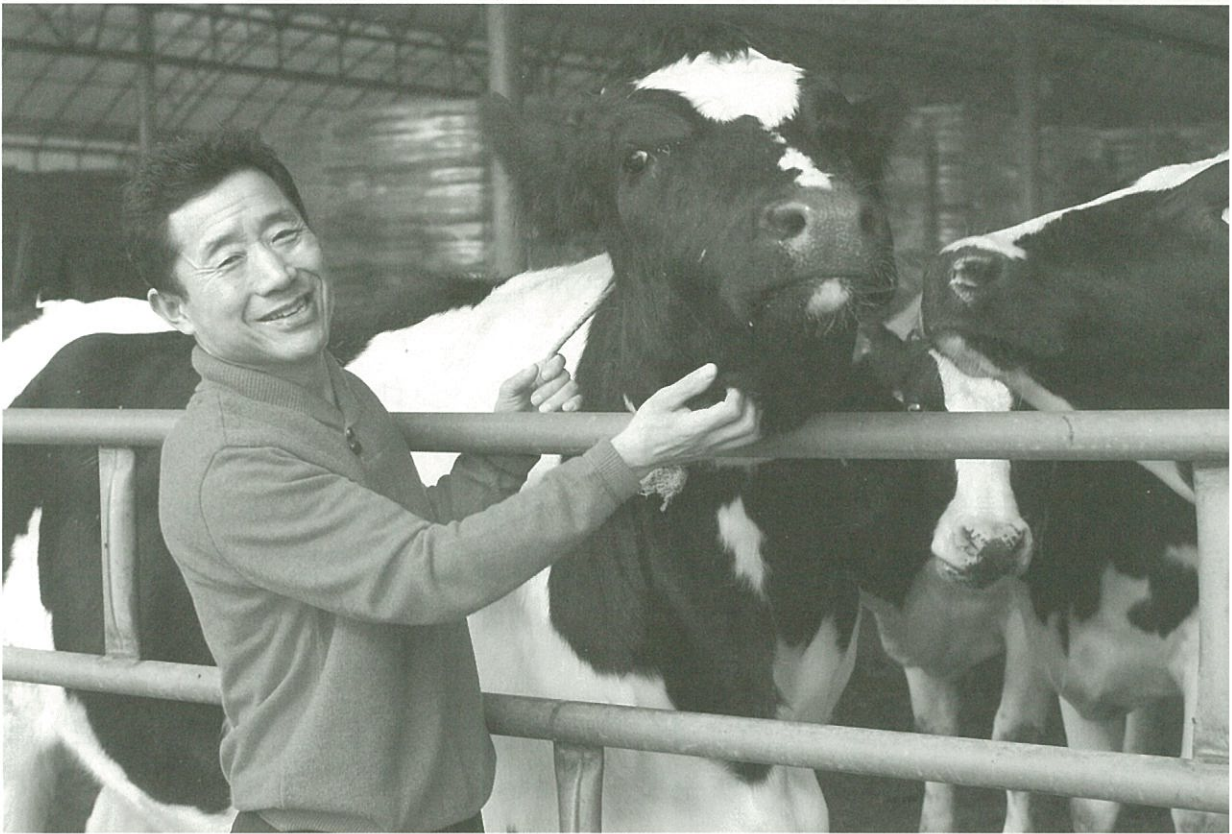


“깨끗한 목장은 미래 낙농의 경쟁력이자 나아가야 할 길”

김포 을축목장을 찾아서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좋은 소에서
좋은 우유가 생산된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를 실천해 나간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소가 반드시 안겨줄 것입니다.”



1985년 을축년에 목장을 시작해 2009년 HACCP(해썹) 인증, 2011년 친환경 축산물(무항생제) 인증, 2011년 가축위생시험소 동물복지평가 1등에 이어 2012년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대상을 수상한 을축목장(대표 이순표·신미애). 자유무역협정(FTA)시대에 낙농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비결은 바로 목장을 깨끗하게 관리 하는 것이라고 믿는 이순표 대표에게 10년간 1등급 최상의 유질을 유지한 비결을 들어 보았다.

대상 수상 후 '깨끗한 목장 위한 전도사' 역할 자처

을축목장은 지난 2012년 경남 산청의 누리목장과 함께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목장을 시작하면서 '청결'을 최우선 원칙으로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라고 이순표 대표는 생각한다. 분뇨처리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목장 주변에 조경수와 야생화를 심는 등 조경에 신경 쓴 결과, 냄새 없는 깨끗한 목장으로 거듭났다. 목장 주변에 피어있는 공작초, 썩부쟁이, 산국, 꽃잔디와 분수 등 조형물 그리고 축사가 한데 어우러진 을축목장의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순표 대표는 대상 수상 이후 뿌듯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커지기 때문에 전보다 더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다른 목장에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권하기가 쉬워졌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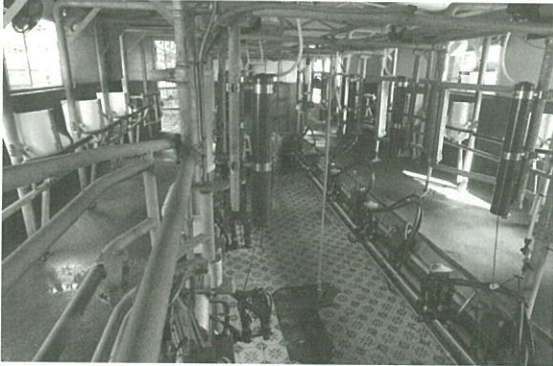
“대상을 받고 나서는 ‘당신들도 이렇게 목장을 깨끗이 운영하라’고 떳떳하게 권할 수 있게 되었습니



착유실 입구에 부착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대상, 2009년 HACCP(해썹) 인증, 2011년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인증 팻말

다. 웬지 보증 받은 느낌이었죠. 이제 깨끗한 목장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 다른 목장도 수긍하기 시작했고, 목장환경 개선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깨끗한 목장 가꾸기의 전도사 역할을 하는데 상이 큰 역할을 하게 된 셈입니다.”





위생과 청결을 우선하는 목장주의 착유실

깨끗하게 정돈된 가축분뇨 처리장
(3단계 자연 발효과정을 거친 후 퇴비화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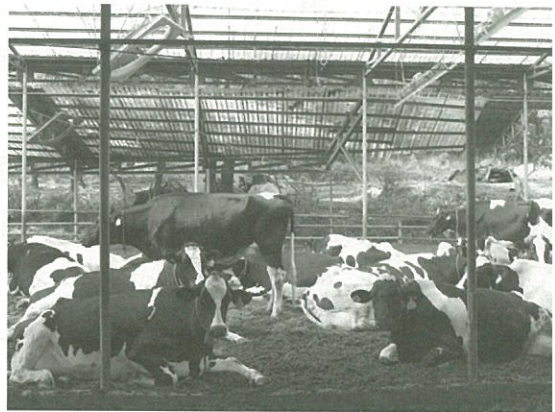


청결한 목장관리, 생산성 향상되고 일 능률 올라

을축목장은 서울우유에 납유하면서 10년 이상 유질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량과 유질 항목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다. 2001년에는 서울우유 검정평가대회 유질 우수상, 농림부·농협중앙회의 우유군 능력검정평가 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렇게 유질부문의 최우수 목장이 된 것은 바로 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준 덕택이라고 한다.

“목장이 깨끗하면 우선 악취가 없고 파리나 모기가 현저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기나 유방염, 부제병 등의 질병 발생 확률이 낮아지지요. 이렇게 목장 환경이 좋다 보니 일터에서 의욕이 생겨나 결국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을축목장은 이런 선순환 구조 때문에 10년 이상 체세포, 세균수에서 매년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고, 2010년 주변지역의 축산 농가들이 대부분 감염된 FMD(구제역)에도 끄떡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법에 따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해야만 했다고.



젖소들이 운동장에 안락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다.

목장 이름이 담긴 팻말
앞에서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이순표·
신미애 부부



백색 시유 중심인 한국, 품질과 환경 신경 써야

이순표 대표는 FTA시대를 맞아 우리 낙농업의 경쟁력을 기르는 일 또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의 경우 낙농 강국이지만 주로 가공유 중심의 낙농산업이 발달했고, 우리나라는 특히 백색 시유의 환경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먼저 품질(유질)과 신선도, 목장 환경이 우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작은 부지에서 밀식사육을 하면서, 분뇨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냄새가 심한 목장들을 소비자가 보게 된다면 우리 우유를 찾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유 소비를 확대하려면 깨끗한 환경은 저절로 따라와 줘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낙농가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목장에서 생산하는 우리 우유가 최고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하는 것이지요. 하얀 우유가 더러운 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여줘서는 안됩니다. ‘똥이 뒹구는 목장을 한다’는 소비자의 부정적인 시각을 이젠 불식시켜야 해요.”

이처럼 깨끗한 목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순표 대표는 평소 분뇨처리를 철저히 하고,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목장을 청결히 하고 적정 두수를 사육하다 보면 면역력도 생기고, 질병 감염도 줄어들어 결국 목장 청결이 바로 소를 위한 ‘자연 치유제’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 이제는 운동이 아닌 현실

“방역은 강제 사항이다보니 의무적으로 할 수 있지만, 깨끗한 목장 가꾸기는 목장주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목장주가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목장주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청결하고 깨끗하게 목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목장 가꾸기는 낙농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는 운동이 아니라 국내 전체 낙농인이 참여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다가왔다. 단순히 우유만 생산하는 시대를 지나, 깨끗한 환경에서 품질 좋고, 신선한 우유를 생산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방법이자, 우리 낙농이 살아나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아울러 이 대표는 “깨끗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좋은 소에서 좋은 우유가 생산된다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를 실천해 나간다면 그에 대한 대가는 소가 반드시 안겨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

